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참석자 만찬

대한민국은 비관적인 전망을 극복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의 미래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힘든 토론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회의 모두에 존 나이스빗 교수께서 연설해주셨습니다. 그 연설은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기소르망 교수께서 쓰신 책을 사서 읽다가 힘들어 중간에 그만 둔 일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어제 직접 보니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앞자리 계신 분들 한분 한분이 말씀을 평소 관심 갖고 보아 왔는데 오늘 뵙게 되니 기쁩니다.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는 경우에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비관적 전망 극복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이룬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지금의 성취에 만족해 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아직까지 의욕이 넘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민들을 강한 추진력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확한 방향으로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어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과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한국이 나갈 방향을 미리 발견하고 제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자리지만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해 준비된 로머 교수, 스텐교수님 발췌 사장님 발제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제 희망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신 좋은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선택된 방향으로 전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을 제시해줘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거나 우리의 추진력이 모자라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방향을 제시하신 분들에게도 실패의 책임을 함께 지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미리 약속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시한 방향이 어느 정도만 맞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성공의 결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해주시고 저녁도 편안하게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